

청년취업난의 악화(Ⅱ) :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금재호*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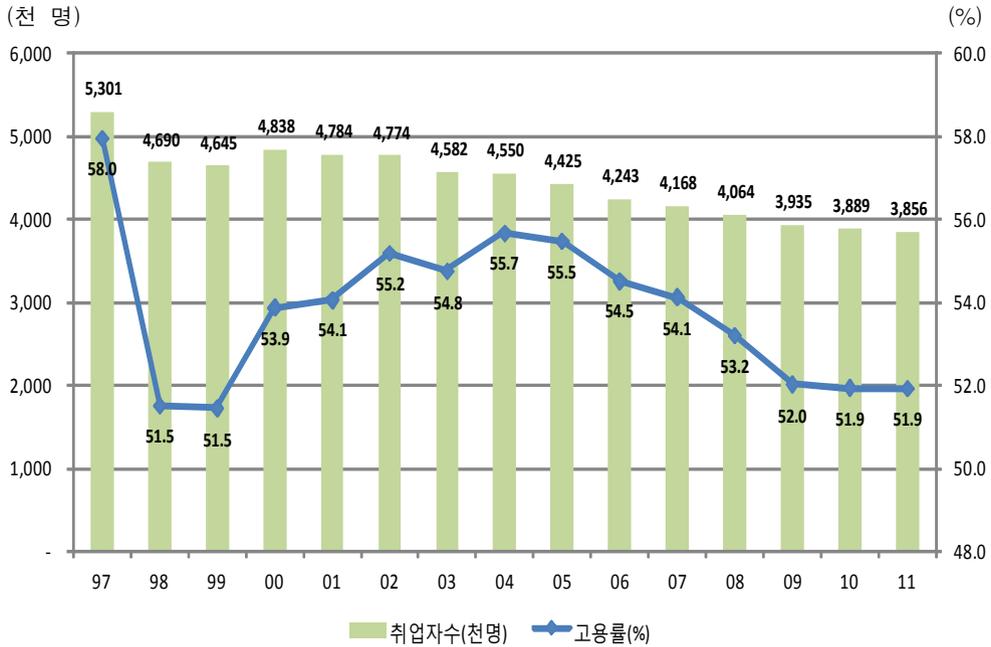
구직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의 하나가 청년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기보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이 핵심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고령자의 취업난과는 거리가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핵심적 원인은 부모나 다른 가족이 생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직장탐색비용(job search cost)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또는 직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생애기대소득과 사회경제적 위상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또한 질 낮은 일자리 취업으로 인한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위험성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의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그림 1]과 같이 2004년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다. 2012년 4월 『월간 노동리뷰』의 「청년취업난의 악화(Ⅰ) : 피해자는 누구인가?」에서 2003~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05~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연기 또는 휴학한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층 모두가 동일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은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난이 휴학을 증가시키고 수업학기의 연장으로 인해 졸업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4월호의 분석결과는 청년취업난의 측정을 위한 보조지표인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나 ‘취업애로계층’이 청년취업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또한 청년취업난의 정확한 이해와 대책수립을 위해 청년을 재학·휴학한 청년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그림 1〕 18~29세 모든 청년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졸업·중퇴한 청년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영속적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만약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 청년취업난의 실상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 이 글에서도 입시학원 통학이 아닌 졸업·중퇴자로 대상을 제한하여 분석을 하도록 한다.

지난 4월호에서 ‘청년취업난으로 누가 피해를 입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호에서는 ‘취업난의 악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는가?’에 초점을 두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정규직 여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과 같이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03~201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상용직 및 정규직 여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 청년층 일자리의 질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의 변화

1. 종사상 지위: 상용직의 급증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상용직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 2003년 이후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임시직의 감소와 자영업의 경영위기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의 축소에 주로 기인한다.

성별로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이 남성을 앞선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1년을 예로 들어 15~29세 여성의 상용직 비중은 65.8%로 남성보다 4.0%포인트가 높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낮다. <부표 1>에서 2011년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 취업자의 75.2%가 상용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반면, 임시직은 17.7%, 일용직 1.1%,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는 6.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졸 이하 저학력 취업자는 상용직의 비중이 절반에도 미달하는 45.6%로 나타났다.

<표 1> 15~29세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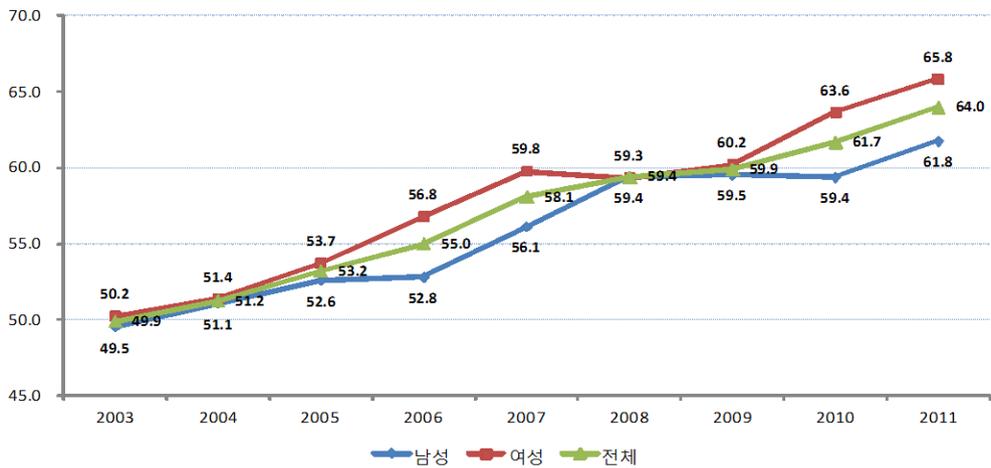
(단위: %)

	임금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	소계
2003	49.9	35.4	5.5	90.7	1.8	4.4	3.1	9.3
2004	51.2	35.2	5.6	92.0	1.1	4.1	2.8	8.0
2005	53.2	33.6	5.7	92.5	1.0	4.0	2.6	7.5
2006	55.0	32.8	4.9	92.7	0.9	3.9	2.5	7.3
2007	58.1	30.6	4.8	93.4	1.0	3.6	2.1	6.6
2008	59.4	29.4	4.2	92.9	1.2	4.0	1.9	7.1
2009	59.9	29.4	4.1	93.3	1.2	3.5	2.0	6.7
2010	61.7	28.3	3.8	93.8	1.1	3.3	1.8	6.2
2011	64.0	26.5	3.2	93.6	1.3	3.2	1.9	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이 글의 모든 분석에서 ‘입시학원 통학이 아닌 졸업·중퇴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시학원 통학이 아닌 졸업·중퇴생’이라는 말을 생략한다.

〔그림 2〕 15~29세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리고 15~29세 청년의 경우 상용직의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현저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30~54세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면 <부표 2>처럼 남녀 모두에 대하여 15~29세의 상용직 비중 증가가 30~54세의 상용직 비중 증가보다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15~29세와 30~54세 모두 비슷한 속도로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부표 2>에서 ‘입시학원 통학이 아닌 졸업·중퇴’한 15~29세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이 남녀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이들이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임금근로 내에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2. 정규직 여부: 높은 정규직 비중과 비정규직 비율의 하락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8월의 경우 청년 중 정규직의 비중은 74.1%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5.8%보다 8.3%포인트가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청년은 한시적 근로가 20.4%, 시간제 근로 3.8%, 비전형 근로) 5.0%이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의 비중은 19.7%, 시간제 9.7%, 비전형 13.9%로 나타났다. 이를 서로 비교하면 한시적 근로의 비중은 엇비슷하나 시간제 근로와 비전형 근로에서는 청년이 현저하게 낮은 비중을 보인다. 즉 청년은 시간제 또는 비전형 일자리의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여겨

2) 비전형 근로에는 용역, 파견, 일일근로, 가정내근로 및 특수형태근로가 포함된다.

진다. 비정규직 구성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2003년 8월 이후 시계열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³⁾

비정규직의 비중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처럼 2004년 8월 이후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어 왔다.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8월의 30.0%에서 2011년 8월 25.9%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한시적 근로 및 비전형 근로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진다. 한시적 근로는 동 기간 23.0%에서 20.4%로 낮아졌고, 비전형 근로도 7.9%에서 5.0%로 낮아졌다. 이러한 비정규직 비중의 하락은 이들 청년에게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3]처럼 2007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1년 8월 15~29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7.4%로 남성의 24.1%보다 3.3%포인트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15~29세 여성의 비정규직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성별 격차는 작은 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8월 이후 줄곧 남성보다 여성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⁴⁾ 따라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여성보다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30대 이상인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표 2>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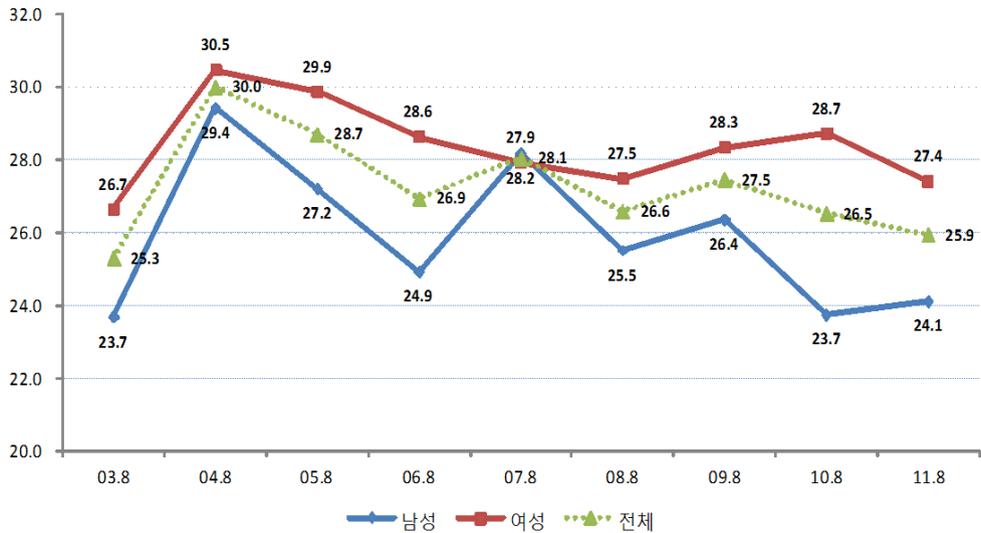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시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합계	
03. 8	2,546(74.7)	640(18.8)	113(3.3)	222(6.5)	862(25.3)	3,407(100.0)
04. 8	2,391(70.0)	785(23.0)	114(3.3)	268(7.9)	1,025(30.0)	3,416(100.0)
05. 8	2,355(71.3)	741(22.4)	120(3.6)	211(6.4)	948(28.7)	3,303(100.0)
06. 8	2,338(73.1)	708(22.1)	106(3.3)	154(4.8)	862(26.9)	3,199(100.0)
07. 8	2,305(72.0)	706(22.0)	123(3.8)	196(6.1)	899(28.1)	3,203(100.0)
08. 8	2,236(73.4)	641(21.1)	89(2.9)	172(5.6)	810(26.6)	3,045(100.0)
09. 8	2,134(72.6)	631(21.5)	113(3.8)	179(6.1)	807(27.5)	2,941(100.0)
10. 8	2,151(73.5)	591(20.2)	137(4.7)	163(5.6)	776(26.5)	2,927(100.0)
11. 8	2,126(74.1)	585(20.4)	110(3.8)	144(5.0)	745(25.9)	2,871(100.0)

주: ()안의 값은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 3)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KOSIS 또는 금재호(2012a)를 참조할 수 있다.
- 4)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8월 남성 27.8%, 여성 42.9%로 남성이 여성보다 15.1%포인트 낮았으며, 이처럼 커다란 성별 격차는 2003년 8월의 조사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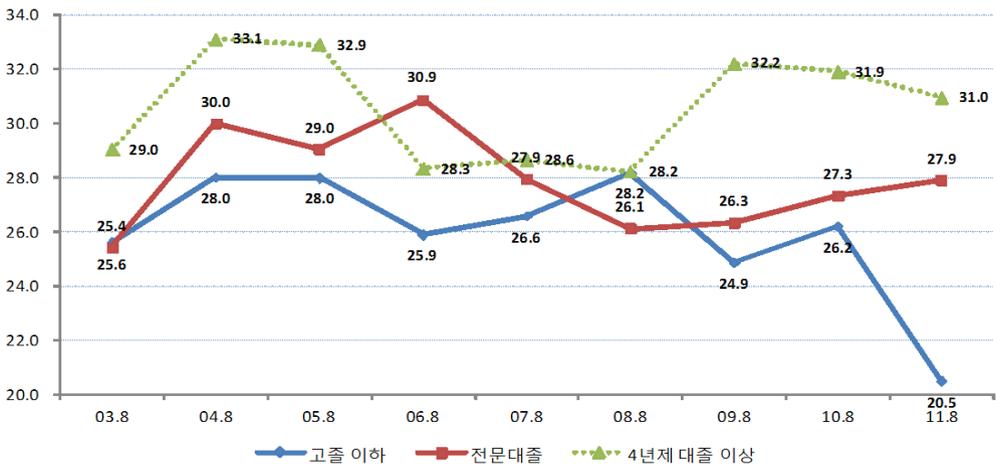
[그림 3] 15~29세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성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학력에 따른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부표 3>과 같이 학력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시계열로 분석하면 전반적인 비정규직 비중의 하락 추세에 따라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청년은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반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8월 이후 거꾸로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4] 15~29세 여성 취업자 중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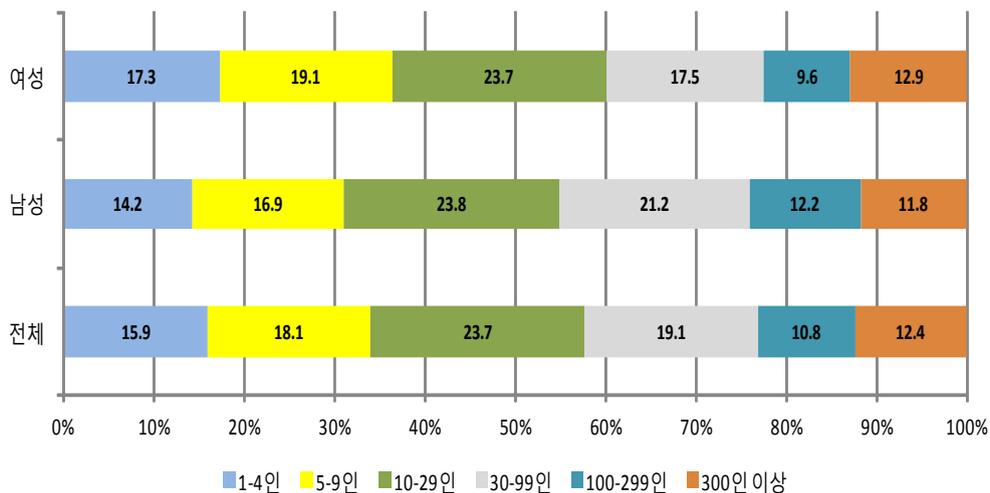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2003년 8월에서 2011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졸 이하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도별로 비정규직 비중의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학력 간 역전현상도 자주 관찰되어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여성은 [그림 4]와 같이 2006년 8월~2008년 8월의 3년간을 제외하고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9년 8월 이후 학력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3. 사업체 규모 : 영세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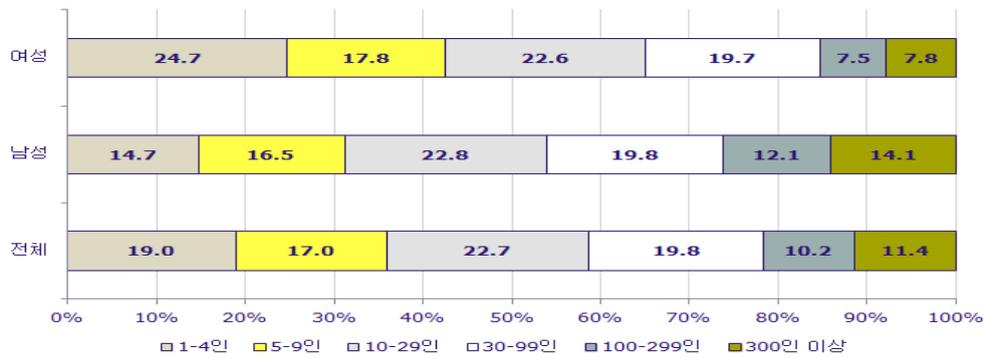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를 보면 [그림 5] 및 <부표 4>와 같이 2011년 청년 임금근로자의 23.2%만이 1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34.0%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취업하여 규모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이 취약하다.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청년들이 취업한 사업체 크기가 전체 임금근로자보다는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처음에 큰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하였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60%에 가까운 청년들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다.

[그림 5] 15~29세 임금근로자의 성별 사업체 규모의 분포 : 2011년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전체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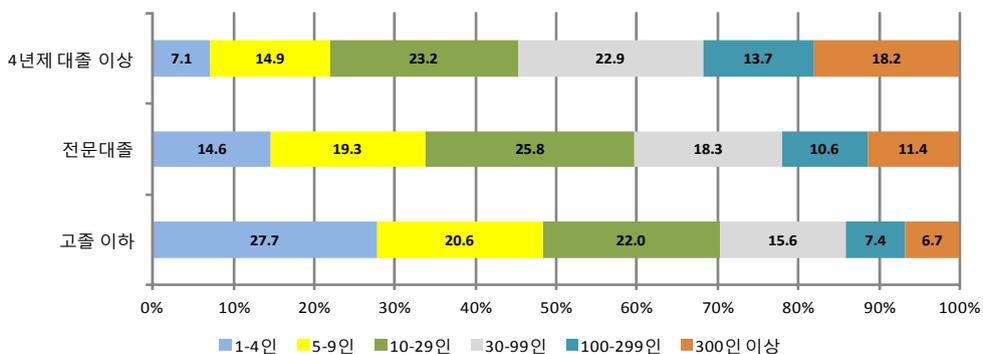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남성은 사업체 규모의 분포가 15~29세 청년이나 전체 임금근로자 모두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성은 15~29세 임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보다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같은 청년이라도 남성은 20대에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30대 이후의 사업체 규모가 서로 비슷한 반면, 여성은 20대에는 상대적으로 큰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30대 이후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학력별로는 예상과 같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7]에서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은 14.1%만이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은 그 비중이 31.9%에 달한다.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7] 15~29세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사업체 규모의 분포 :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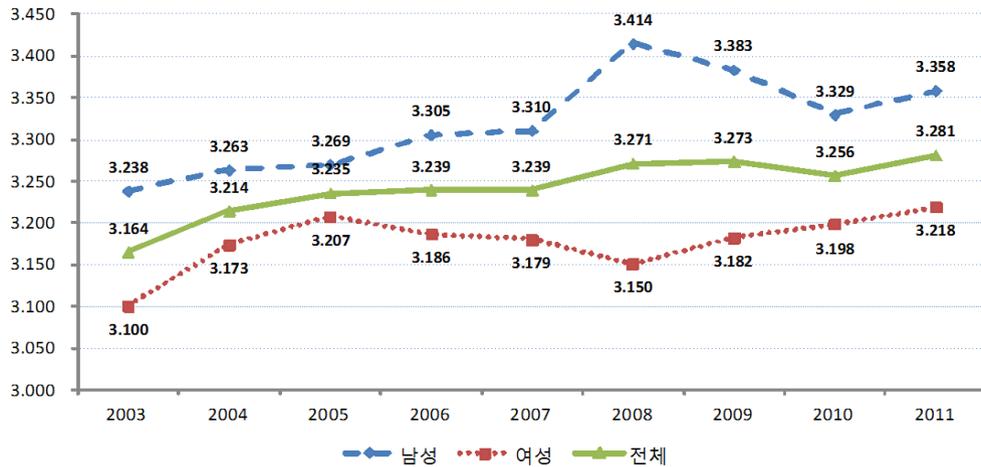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는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가 취업한 사업체 규모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를 통해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작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1~4인 사업체’에는 1의 지수 값을, ‘5~9인 사업체’는 2의 지수 값,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6의 지수 값을 부여하고, 이 지수 값의 평균치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은 지수 값의 평균치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수 값의 평균치가 2003년 이후 매우 작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15~29세 청년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규모가 조금씩이지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사업체 규모의 증가에 보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8] 15~29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지수 값(평균치)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Ⅲ. 고용안정성

1. 평균근속기간: 정제 상태인 평균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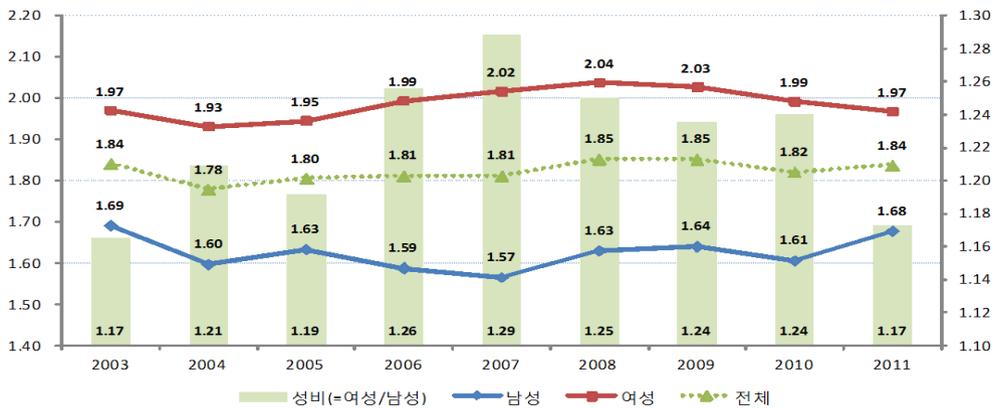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척도로 가장 단순한 것이 평균근속연수와 단기근속자의 비중이다. 그러나 평균근속연수의 감소나 단기근속자 비중의 증가와 같은 지표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한계가 있다. 즉 근속기간의 변화가 인구구조의 변화 및 경

제활동참가율, 취업자 규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균근속기간과 단기근속자 비중의 변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안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9]는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가 현재의 직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평균근속기간(년)의 분포이다. 2011년의 경우 15~29세 청년의 평균근속기간은 1.84년에 불과하다. 전 기간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근속기간이 더 장기간인데 이는 병역 등의 문제로 여성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시계열에 따라서는 [그림 9]와 같이 2003년 이후 청년 임금근로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하다는 것은 금재호(2012b)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금재호(2012b)에서는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직장을 옮기고 있는데, 2005년 이후 평균 취업횟수나 첫 직장의 근속기간에 있어 개선의 징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다(부표 5 참조).

[그림 9] 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년)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의 변화: 고용불안의 개선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비중은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Jaeger and Stevens(1999)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표 3>은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의 연도별 변화를

성별, 학력별로 보여준다. 2003년 이후 2008년까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이 남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그림 10 참조). 2009년을 전후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의 추이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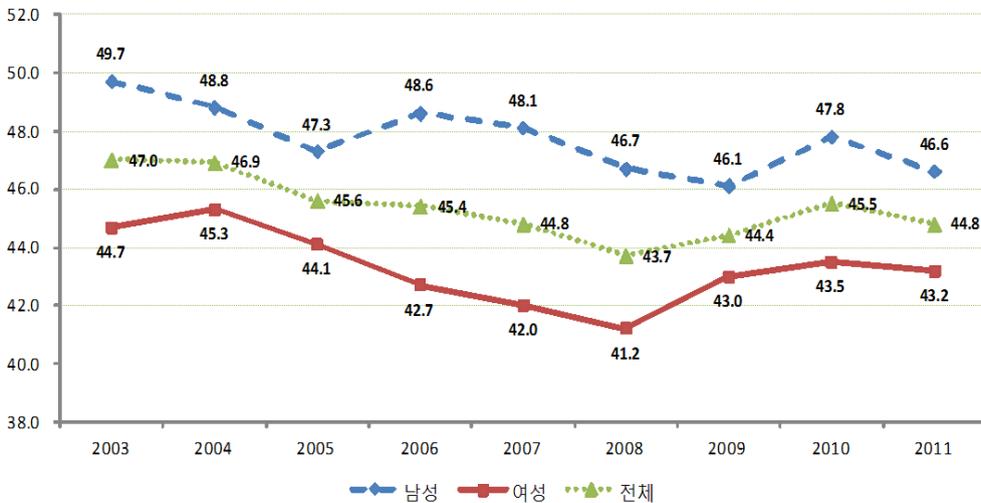
〈표 3〉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의 분포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성		49.7	48.8	47.3	48.6	48.1	46.7	46.1	47.8	46.6
학 력	고졸 이하	53.5	54.0	53.4	55.2	56.2	53.5	52.8	54.0	51.4
	전문대졸	47.8	43.2	41.2	45.3	42.2	41.1	43.5	43.7	43.4
	4년제 대졸 이상	42.6	43.6	41.3	39.9	41.2	42.2	39.7	43.6	43.9
여성		44.7	45.3	44.1	42.7	42.0	41.2	43.0	43.5	43.2
학 력	고졸 이하	47.8	48.4	49.6	49.5	48.8	46.8	47.4	49.6	50.0
	전문대졸	43.0	43.7	42.9	39.8	40.1	38.1	40.2	40.2	41.6
	4년제 대졸 이상	41.5	42.6	38.5	39.0	37.6	40.0	42.7	42.6	40.4
모든 임금근로자		47.0	46.9	45.6	45.4	44.8	43.7	44.4	45.5	44.8
학 력	고졸 이하	50.8	51.3	51.6	52.6	52.9	50.5	50.4	52.1	50.8
	전문대졸	44.9	43.5	42.3	41.8	40.9	39.2	41.5	41.5	42.3
	4년제 대졸 이상	42.0	43.1	39.7	39.4	39.1	40.9	41.5	43.0	4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0〕 15~29세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008년까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의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고용불안의 개선을 주도하였다. 또한 앞의 평균근속기간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일찍 학교를 졸업·중퇴함에 따라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도 모든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⁵⁾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전문대졸 청년에게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즉, 전문대졸 청년이 고용불안의 개선을 주도하였다.

IV. 임금 및 사회보험

1. 임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낮아진 임금상승폭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표 4>와 같이 2011년 8월 159만 1천 원으로 비교대상인 30~54세 임금근로자의 71.6%로 나타났다.⁶⁾ 그리고 시간당 실질임금은 8,634원으로 30~54세 임금근로자의 70.6%이다. 2003년 8월에서 2011년 8월까지의 9년 동안 18~29세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불과 6.1%만 증가하였다.

이처럼 낮은 증가율은 먼저 근로시간의 단축에 크게 기인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시간당 실질임금이 18.0% 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시간당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월평균 실질임금의 상승폭보다 크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월평균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6.1%에 불과한 또 하나의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임금에 미친 충격을 들 수 있다. 2003년 8월에서 2008년 8월까지의 5년 동안 월평균 실질임금이 8.9% 상승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8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대비 3.6% 하락하였고 이것이 실질임금의 상승폭을 크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였다.

추세적으로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실질임금과 시간당 실질임금 모두에서 30~54세 임금근로자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3년 8월 30~54세 임금근로자 실질임금의 72.0%였던 18~29세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은 2008년 8월에 이르러 74.0%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후 임금비가 다시 낮아져 2011년 8월에는 71.6%로 임금비가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월평

5)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여성의 고용불안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6) 여기에서는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을 계산하였다.

〈표 4〉 18~29세 임금근로자 실질임금(2010=100)의 추이

(단위 : %)

	월평균 실질임금(만 원)				시간당 실질임금(원)			
	18~29세 (A)	증감률 (%)	30~54세 (B)	임금비 (A/B)	18~29세 (A)	증감률 (%)	30~54세 (B)	임금비 (A/B)
03. 8	149.9		208.0	0.720	7,315		10,320	0.709
04. 8	151.5	1.1	209.9	0.722	7,563	3.4	10,618	0.712
05. 8	154.2	1.8	210.5	0.733	7,675	1.5	10,810	0.710
06. 8	157.3	2.0	212.7	0.739	7,989	4.1	11,018	0.725
07. 8	159.4	1.4	219.5	0.726	8,251	3.3	11,449	0.721
08. 8	163.3	2.4	220.8	0.740	8,558	3.7	11,697	0.732
09. 8	157.5	-3.6	217.3	0.725	8,336	-2.6	11,752	0.709
10. 8	158.9	0.8	221.0	0.719	8,526	2.3	11,996	0.711
11. 8	159.1	0.2	222.4	0.716	8,634	1.3	12,226	0.706

주 : 여기에서의 실질임금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균 실질임금의 임금비 변화는 시간당 실질임금의 임금비 변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은 우선적으로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거나 이들의 임금을 조정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18~29세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추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부표 6>과 같이 18~29세와 30~54세 사이의 임금비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남성의 경우에는 18~29세의 임금수준이 30~54세의 60%대 정도인 것에 반해, 여성은 18~29세와 30~54세 사이의 실질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30대 이후 경력의 축적에 따라 점차 고소득 일자리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경력단절, 차별 등으로 인해 임금상승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말해준다.

2.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률의 상승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의 추이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2003년 8월의 6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8월 76.7%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진 것은 15~29세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30~54세의 임금근로자도 동일하다.

고용보험가입률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2008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에 대한 질문이 개선되어 자료의 일관성이 손상을 받았다. <표 5>에서는 2008년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률, 그리고 국민연금은 직장 및 지역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8월의 경우 15~29세

〈표 5〉 15~2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15~29세 임금근로자	30~54세 임금근로자	15~29세 임금근로자	30~54세 임금근로자	15~29세 임금근로자	30~54세 임금근로자
03. 8	61.5	51.2	66.4	61.9	65.4	60.9
04. 8	63.6	53.0	68.5	62.9	67.6	62.1
05. 8	66.4	54.1	70.6	63.9	71.0	64.4
06. 8	69.0	56.1	73.7	65.0	74.5	65.5
07. 8	70.1	56.5	76.1	65.9	76.3	66.3
08. 8	71.5	58.3	76.2	67.7	78.2	75.2
09. 8	72.4	60.5	76.4	69.8	79.0	77.2
10. 8	73.8	67.2	75.8	70.4	78.2	78.4
11. 8	76.7	69.7	78.6	72.5	80.2	79.2

주 : 2008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률에 대한 설문이 조정되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임금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78.6%로 30~54세 임금근로자의 72.5%보다 높다. 국민연금도 2011년 8월 15~29세 임금근로자의 80.2%가 직장 또는 지역을 통해 가입하고 있었다.

<표 5>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15~2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이 30~54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고용보험에서 두드러진다.

〈표 6〉 15~29세 임금근로자의 여타 혜택

(단위 :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15~29세 임금근로	30~54세 임금근로	15~29세 임금근로	30~54세 임금근로	15~29세 임금근로	30~54세 임금근로	15~29세 임금근로	30~54세 임금근로
03. 8	57.8	56.8	56.8	55.0	41.7	44.2		
04. 8	59.7	56.9	57.5	54.5	46.4	46.7	51.4	48.5
05. 8	60.3	57.5	59.0	55.6	47.3	47.2	50.4	48.4
06. 8	61.9	57.7	60.6	56.8	46.1	46.1	48.5	47.0
07. 8	67.4	60.4	65.5	59.3	48.2	47.2	59.4	52.8
08. 8	71.5	64.5	65.3	60.5	45.6	46.8	62.5	56.1
09. 8	70.3	65.9	71.0	65.7	47.2	48.2	66.2	60.6
10. 8	70.9	67.5	72.5	69.5	48.4	49.3	68.0	62.6
11. 8	73.5	69.8	74.2	70.3	48.4	48.8	66.3	6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7) 구체적으로 2007년 8월까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사업장 가입률만을 조사한 반면, 2008년 8월부터는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 모두를 질문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각종 혜택에 있어서도 15~29세 임금근로자들은 수혜의 비중을 높여 왔다. <표 6>과 같이 퇴직금을 받는 15~29세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8월의 57.8%에서 2011년 8월 73.5%로 높아져 왔으며, 상여금이나 유급휴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임금 이외의 여타 혜택에 있어서도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15~29세 임금근로자가 30~54세 임금근로자보다 수혜 받는 비중이 더 큰 특징을 보인다.

V. 결 론

2004년 이후 청년 고용률이 계속 악화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졸업 대신 휴학을 선택하거나 학기연장으로 졸업을 미루고 있다. 통상 취업난의 악화는 청년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용직 및 정규직의 비중, 취업한 기업의 규모,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 실질임금의 변화, 사회보험 및 여타 혜택의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고용의 질은 2003년 이후 개선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 질의 개선은 청년층만이 아니라 30~54세 임금근로자 등 고용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자리 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취업난이 여전한 것은 청년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상승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청년들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괜찮은 일자리’에의 취업을 요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취업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KLI**

<참고문헌>

김재호(2012a), 「사업체 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월간 노동리뷰』 제83호, pp.35~56.

_____(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I): 피해자는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제85호, pp.17~3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_____, <http://kosis.kr>

Jaeger, David A. and Ann Huff Stevens(1999), “Is Job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Falling? Reconciling Trends in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an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4), pp.1~28.

[부 표]

〈부표 1〉 15~29세 청년 취업자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의 변화

(단위 : %)

	학력	임금근로			자영업 종사자			전 체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	
2003	고졸 이하	37.4	42.1	9.0	1.9	5.3	4.2	100.0
	전문대졸	57.3	33.3	2.7	1.4	2.7	2.6	100.0
	대졸 이상	67.5	23.8	1.3	2.0	4.2	1.3	100.0
2005	고졸 이하	39.4	41.8	9.7	1.1	4.6	3.4	100.0
	전문대졸	60.7	30.5	3.5	0.4	2.7	2.2	100.0
	대졸 이상	67.4	23.8	1.6	1.3	4.2	1.7	100.0
2007	고졸 이하	41.3	41.3	9.9	0.8	4.0	2.8	100.0
	전문대졸	64.5	28.2	2.2	0.9	2.4	1.8	100.0
	대졸 이상	71.8	19.9	1.2	1.3	4.4	1.5	100.0
2009	고졸 이하	42.9	40.1	8.1	1.6	4.1	3.2	100.0
	전문대졸	65.1	27.0	2.5	0.9	2.8	1.8	100.0
	대졸 이상	71.8	20.8	1.7	1.0	3.6	1.1	100.0
2011	고졸 이하	45.6	38.6	6.8	1.4	4.1	3.6	100.0
	전문대졸	69.2	24.7	1.9	1.4	1.8	1.0	100.0
	대졸 이상	75.2	17.7	1.1	1.1	3.5	1.4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표 2〉 성별·연령대별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의 변화

(단위 : %)

	남성			여성			전 체		
	15~29세	30~54세	전 연령	15~29세	30~54세	전 연령	15~29세	30~54세	전 연령
2003	49.5	43.5	39.6	50.2	18.2	23.2	49.9	33.9	32.8
2004	51.1	44.2	40.5	51.4	20.1	24.4	51.2	35.0	33.8
2005	52.6	45.3	41.1	53.7	21.7	25.6	53.2	36.2	34.6
2006	52.8	46.1	41.6	56.8	23.6	27.0	55.0	37.3	35.4
2007	56.1	47.2	42.7	59.8	25.7	28.7	58.1	38.8	36.8
2008	59.4	48.9	44.2	59.3	28.2	29.9	59.4	40.8	38.2
2009	59.5	51.9	46.2	60.2	30.3	31.2	59.9	43.5	40.0
2010	59.4	53.8	47.9	63.6	34.4	34.5	61.7	46.3	42.3
2011	61.8	55.2	48.9	65.8	38.2	37.1	64.0	48.6	44.0

주 : 15~29세 및 30~54세는 '입시학원을 통학하지 않은 졸업 또는 중퇴'한 취업자이나 전 연령은 졸업 또는 중퇴 여부와 상관없이 15세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의미함.

〈부표 3〉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성별·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

(단위 : %)

시점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03.8	24.5	25.6	25.1	23.0	25.4	24.5	20.5	29.0	25.3
04.8	30.7	28.0	29.0	26.5	30.0	28.7	28.0	33.1	30.9
05.8	29.1	28.0	28.6	25.8	29.0	27.9	24.0	32.9	29.0
06.8	25.7	25.9	25.8	24.2	30.9	28.4	22.3	28.3	25.9
07.8	27.7	26.6	27.2	27.0	27.9	27.6	28.8	28.6	28.7
08.8	26.8	28.2	27.4	25.7	26.1	26.0	22.6	28.2	25.8
09.8	28.2	24.9	26.7	24.9	26.3	25.8	24.4	32.2	28.9
10.8	24.2	26.2	25.1	21.2	27.3	25.1	24.7	31.9	29.0
11.8	25.9	20.5	23.4	22.2	27.9	25.7	23.3	31.0	27.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표 4〉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분포

(단위 : %)

성별	연도	사업체 규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남성	2003	17.5	17.2	23.0	20.0	10.9	11.4	100.0
	2004	17.5	16.2	22.8	20.7	11.7	11.1	100.0
	2005	17.1	18.0	21.8	19.2	12.1	11.9	100.0
	2006	16.2	17.6	22.6	19.2	11.7	12.7	100.0
	2007	16.1	17.1	22.0	21.0	11.7	12.1	100.0
	2008	15.0	15.8	21.9	21.1	12.6	13.6	100.0
	2009	14.8	16.1	22.6	21.1	13.3	12.1	100.0
	2010	15.2	16.2	23.4	21.7	13.0	10.6	100.0
	2011	14.2	16.9	23.8	21.2	12.2	11.8	100.0
여성	2003	20.3	18.6	22.9	18.4	8.6	11.2	100.0
	2004	18.3	19.7	21.8	18.8	9.7	11.8	100.0
	2005	18.1	19.7	21.5	17.8	10.0	12.9	100.0
	2006	18.7	18.8	21.8	18.9	9.7	12.2	100.0
	2007	19.2	18.4	21.4	19.2	9.9	11.9	100.0
	2008	19.5	18.9	22.0	18.2	9.5	11.9	100.0
	2009	18.5	19.0	22.5	18.0	10.2	11.9	100.0
	2010	18.3	18.9	22.3	18.2	10.1	12.3	100.0
	2011	17.3	19.1	23.7	17.5	9.6	12.9	100.0
전체	2003	19.0	17.9	22.9	19.2	9.7	11.3	100.0
	2004	17.9	18.1	22.2	19.6	10.6	11.5	100.0
	2005	17.6	18.9	21.6	18.4	10.9	12.5	100.0
	2006	17.6	18.3	22.1	19.0	10.6	12.4	100.0
	2007	17.8	17.8	21.7	20.0	10.7	12.0	100.0
	2008	17.5	17.5	22.0	19.5	10.9	12.7	100.0
	2009	16.8	17.7	22.5	19.4	11.6	12.0	100.0
	2010	16.9	17.7	22.8	19.8	11.4	11.5	100.0
	2011	15.9	18.1	23.7	19.1	10.8	12.4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표 5〉 최종학교 졸업·종퇴 후 취업횟수의 분포 및 첫 직장의 근속기간 : 18~29세

		2005. 5	2006. 5	2007. 5	2008. 5	2009. 5	2010. 5	2011. 5
취업횟수	없음	8.1	8.8	8.3	8.9	10.0	9.9	10.9
	한 번	35.4	38.5	36.5	36.5	35.1	33.7	36.2
	두 번	23.0	22.6	23.3	22.6	22.0	23.2	23.0
	세 번	17.4	15.9	17.7	17.5	18.2	17.7	15.6
	네 번 이상	16.1	14.3	14.2	14.5	14.8	15.5	14.4
평균 취업횟수(없음 포함)		1.98	1.88	1.93	1.92	1.93	1.95	1.86
첫 직장의 근속기간(개월)		20.6	21.4	20.9	20.4	20.3	19.4	19.6

주 : 금재호(2012b)에서 재인용하였으며, 평균 취업횟수에서 '네 번 이상'은 4회로 간주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부표 6〉 성별로 본 18~29세 임금근로자 실질임금(2010=100)의 추이

		월평균 실질임금(만 원)				시간당 실질임금(원)			
		18~29세 (A)	증감률 (%)	30~54세 (B)	임금비 (A/B)	18~29세 (A)	증감률 (%)	30~54세 (B)	임금비 (A/B)
남 성	03. 8	164.8		251.3	0.656	7,799		12,192	0.640
	04. 8	165.7	0.5	252.8	0.655	7,841	0.5	12,468	0.629
	05. 8	170.6	3.0	253.8	0.672	8,143	3.9	12,738	0.639
	06. 8	171.2	0.4	256.4	0.668	8,265	1.5	13,030	0.634
	07. 8	172.0	0.4	265.5	0.648	8,612	4.2	13,630	0.632
	08. 8	178.0	3.5	265.2	0.671	9,066	5.3	13,812	0.656
	09. 8	171.7	-3.5	262.5	0.654	8,819	-2.7	13,946	0.632
	10. 8	169.3	-1.4	266.8	0.635	8,824	0.1	14,243	0.619
	11. 8	173.1	2.2	268.3	0.645	9,207	4.3	14,454	0.637
	여 성	03. 8	137.0		132.7	1.033	6,900		7,065
04. 8		139.8	2.1	136.7	1.023	7,333	6.3	7,464	0.982
05. 8		141.3	1.0	138.4	1.021	7,304	-0.4	7,592	0.962
06. 8		145.5	3.0	142.7	1.020	7,757	6.2	7,792	0.996
07. 8		148.6	2.1	145.6	1.020	7,939	2.3	7,944	0.999
08. 8		151.1	1.7	149.2	1.013	8,135	2.5	8,288	0.982
09. 8		145.8	-3.6	145.7	1.000	7,935	-2.5	8,271	0.959
10. 8		150.5	3.2	149.7	1.005	8,286	4.4	8,497	0.975
11. 8		147.9	-1.7	151.1	0.979	8,173	-1.4	8,765	0.933

주 : 여기에서의 실질임금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